

2020 년 8 월 18 일

교구 여러분에게

가톨릭 오사카대교구

대주교 마에다 만요

2020 년 인터네셔널 데이(10 월 18 일)에 관하여

+ 주님의 평화

현재, 일본에 있는 가톨릭 신자의 절반 이상은 외국 국적의 신자라고 합니다.
오사카교구는 새로운 사업 계획에 의거하여 '교류하는 교회'를 목표로
매년 오사카 주교좌 성당인, 성 마리아 대성당에서 인터네셔널 데이(국제협력의 날)
미사와 교류행사를 25 년에 걸쳐 실시해 왔습니다.
안타깝게도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로 인해,
예년과 같은 교구 행사를 개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.

이로 인해 올해에는 이 취지를 담은 행사를 각 지구나 블록 · 소교구에서
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시했으면 합니다.

'외국인 · 이주자와 함께 드리는 미사' 를 다국어로 거행하거나,
온라인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 등을 생각 할 수 있을 것입니다.
언어와 국적, 인종, 문화의 차이를 넘어 하나가 되어,
함께 기도하고, 나누고, 축하하는 것은 하느님의 가족인 교회의 본래 모습입니다.
올해 인터네셔널 데이(국제협력의 날)에도 공동체의 유대가 넓어지고
형제적 사랑이 깊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.

감사와 기도 안에서